

【논문】

들뢰즈의 칸트 해석에서 시간이라는 문제* **

김재인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존재론

【주요어】 들뢰즈, 칸트, 세익스피어, 시간, 햄릿, 브루투스, 폭풍우, 리어왕

【요약문】 들뢰즈의 「칸트 철학을 요약해 줄 수도 있을 네 개의 시적 경구에 대해」는 글 전체가 세익스피어를 참조한다. I절에서 햄릿은 경첩에서 빠져 나온 시간을 말했다. 이로써, 시간은 외연적 운동에 종속되기를 그치고 해방되어 자율성을 얻는다. II절에서 시간은 내공적 운동에서도 해방되는데, 여기서 규정되는 것(‘자아라는 것’)에게 규정하는 것(‘나라는 것’)은 하나의 타자로 재현되며, 시간은 양자를 갈라놓으면서 이어준다(내부성의 형식). 햄릿의 비판적 성취는 이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존재의 운동에 합일한다는 점에 있다. III절에서 브루투스는 법의 순수한 명령인 “해라!”를 그 선(善)을 연역함으로써 최우선으로 실천하지만, 영원히 선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선은 법이 말하는 그것이지만, 심판은 무한히 지연되며, 이런 지연은 시간의 단선적 흐름 때문에 생긴다. IV절에서는 모든 감각들 또는 능력들이 자유롭게 실행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조화를 강변한다(‘불화하는 조화’). 할 수 있는 데까지 펼쳐지는 힘들의 자유로운 실행이라는 폭풍우를 통해 이르게 되는 불협화음이 바로 시간의 원천이다.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이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2013년 11월 2일 ‘서양근대철학회 추계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이날 논평을 해준 안윤기 박사와 투고 논문에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는 다섯 길 물 속에 누워 있다.
 그의 뼈로 산호가 만들어졌고,
 저 진주들은 그의 눈이었었구나.
 그의 몸 어느 하나 자취를 감추지는 않았구나.
 허나 바다의 변화를 겪어,
 풍요롭고도 낯선 것이 되었구나.
 바다 요정들이 자꾸만 조종(弔鐘)을 울린다.
 (딩-동)
 들어봐라! 지금 종소리가 들린다, 덩-동.

— 셰익스피어, 『폭풍우』(*The Tempest*), 1막 2장¹⁾

I. 들어가는 말

칸트에 대한 들뢰즈의 연구는 ‘시간’의 본성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들뢰즈가 칸트 철학에 대한 견해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짧은 글 하나를 분석하면서, 그 글에 나타난 ‘시간’의 문제를 해명하고 정리하려 한다.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 철학』²⁾의 영어 번역판³⁾에 「칸트 철학을 요약해 줄 수도 있을 네 개의 시적 경구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서문을 달았다.⁴⁾ 이 글은 다시 2년 뒤에 저널 『철학』(*Philosophie*) 9호에 불어로 게재된다.⁵⁾ 이

1) “Full fathom five thy Father lies, / Of his bones are Corral made: / Those are pearls that were his eyes, / Nothing of him that doth fade, / But doth suffer a Sea-change / Into something rich, & strange: / Sea-Nymphs hourly ring his knell. / (ding dong.) / Harke now I heare them, ding-dong, bell.”(W. Shakespeare, *The Tempest* (1610-11), 539-47행.)

2) Gilles Deleuze,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 Paris: PUF, 1963.

3) Gilles Deleuze, *Kant's Critical Philosophy*, tr. Hugh Tomlinson & Barbara Habberjam, London: The Athlone Press, 1984.

4) Gilles Deleuze, “On four poetic formulas which might summarize the Kantian philosophy” in Deleuze(1984), pp. vii-xiii. 이 글의 번역은 질 들뢰즈, 『칸트의 비판 철학』, 서동욱 옮김, 서울: 민음사, 1995, pp.135-148에 수록되어 있다.

5) Gilles Deleuze, “Sur quatre formules poétique qui pourraient résumer la philosophie

텍스트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들뢰즈의 생애 마지막 저술(논문집)인 『비평과 진단』⁶⁾에 수록되는데, 이 수정과 보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검토할 것은 이 텍스트의 각 판본이다.⁷⁾ 그 중에서도 영어판과 불어판 1판은 번역의 사소한 뉘앙스 정도를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는 반면, 1판과 2판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 차이는 주로 ‘시간’의 문제와 관련된다. 들뢰즈가 ‘시간’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최초의 텍스트에서도 드러나지만, 수정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점은 더 분명히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1판과 구별되는 2판의 문구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표시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2판을 더 중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시간의 문제를 칸트를 통해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들뢰즈가 칸트의 인식론적 과제를 존재론적 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⁸⁾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존재론화한다는 점은 들뢰즈의 철학을 두드러지게 관통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칸트의 주객관계 인식론 및 주관의 인식 능력들을 해명과는 과정에서도 들뢰즈가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들뢰즈의 칸트가 과연 칸트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들뢰즈가 칸트의 몫으로, 그것도 공(貢)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한다. 들뢰즈 자신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 물음을 다루는 좋은 방식의 하나이리라. “분명 칸트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이지만, 칸트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결코 자의적이지 않은, 네 개의 경구를 우리는 제안했다.”(IV절) 대

kantienne”, 1986, pp. 29-34. 이 글의 번역은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서울: 이학사, 2007, pp. 161-176에 수록되어 있다.

6) Gilles Deleuze, *Critique et Clinique*, Paris: Minuit, 1993.

7) 본문에서는 1984년 불어판 텍스트를 1판, 수정 보완된 1993년 판본을 2판으로 지칭하고, 각 경구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쪽수 대신 각 경구의 번호인 I절, II절, III절, IV절로 지칭하겠다. 다만, 본 논문의 각 절이 경구 번호의 내용에 대응하기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인용은 모두 각 경구의 것이다. 또한 1판에는 없고 2판에만 있는 내용은, { }로 묶어 차이를 밝혔다.

8) 백종현(2006), 『순수이성비판』 해제, pp. 35-45 참조.

신 논의의 초점을 들뢰즈가 칸트를 해석하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철학적 주제인 ‘시간’과 ‘존재론’의 문제에 맞추려 한다. 이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 더 밝히고자 하는 것은, 들뢰즈의 이 글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명시적 암시적 헌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본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셰익스피어의 텍스트를 참조하면서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이 숨은 헌정은 철학이 문학과 교차하는 드물고도 신비한 장면을 잘 보여주게 되리라.

II. 시간은 경첩에서 빠져 나왔다 (The time is out of joint)⁹⁾

“{『순수이성비판』은 북구의 왕자 햄릿의 책이다.}” 들뢰즈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1막 5장에 나오는 “The time is out of joint”라는 말을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 이룩한 첫째 성취로 제시한다. 본래 이 구절은 죽은 아버지의 유령에게서 진실을 듣고 난 햄릿이 내뱉는 말로서, 지금까지 안정되게 흐르던 시간 질서가 깨어졌음을 가리킨다. 들뢰즈는 이 말로써 ‘시간의 진실’을 드러내려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의 해방을 이룩한 자}”는 “{기원적 운동(un mouvement originaire)}”의 귀결로서 “{시간을 겪는(subi [le temps])}” 아이스킬로스의 영웅이나 “{방황하는 행동(une action aberrante)}”의 귀결로서 “{시간을 겪는}” 소포클레스의 영웅(가령 오이디푸스) 같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햄릿이다. “{햄릿은 행동하기 위해 시간이 진정으로 필요했던(vraiment besoin du temps pour agir) 최초의 영웅이다.}” 이는 칸트가 처했던 “{도시의 시간}”, “{시간의 순수한 질서}”라는 역사적 상황과도 관련된다.

영어 joint, 불어 gond, 라틴어 cardo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축” 즉 ‘경

9) “The time is out of joynt.” (W. Shakespeare, *Hamlet* (1599-1602), 885행. 본 논문의 각 절의 제목은 1판의 경구에서 가져왔다. 2판은 셋째, 넷째 경구를 조금 바꾸었다.

첩’을 가리킨다. 본래부터 *cardo*는 ‘뭔가가 그것에 의존하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¹⁰⁾ 그렇기에 *cardo*는 “시간이 측정하는 주기적 운동들이 경유하는 정확히 기본이 되는 점들에 시간이 종속되어 있음”을 지칭한다. 이 주기적 운동은 “{세계의 원운동}”이기도 하다. “시간이 자신의 경첩에 머물러 있는 한, 시간은 {연장적(*extensif*)} 운동에 종속되어 있다. 시간은 운동의 척도(*measure*), 즉 간격(*intervalle*) 또는 수(*nombre*)인 것이다.” 이런 시간관은 “고대 철학”의 특성이었다.

여기서 들뢰즈가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고대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4권에서 시간의 척도를 수립하는 운동, 즉 주기적 운동 또는 원운동으로서 천체의 운동, 무엇보다 태양의 운동을 든다. 태양은 규칙적으로 지구 둘레를 도는데(지구의 자전),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라는 시간의 척도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식으로 측정되는 수가 바로 시간이다. 이처럼 주기적 운동은 시간의 척도를 제공해 주며,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운동에 종속되어 있다.¹¹⁾ 들뢰즈가 주기적 운동에 “연장적”이라는 제한을 덧붙인 것은, 그것을 내공적(*intensif*, 內鞏的) 운동과 구별하기 때문이다. 운동에 종속된 시간 이해에서, 시간의 수는 기수(基数, 基本數, *cardinal number*)로 표현되며, 1주기(週期)가 단위(*unité*)가 되어 모든 시간은 그 단위의 유리수(有理數) 배(倍)로 나타낼 수 있다.¹²⁾

이제 들뢰즈는 바로 그러한 시간 이해의 “전복”을 칸트에서 본다. “경첩에서 빠져 나온(*out of joint*) 시간”은 “시간에 종속된 것은 바로 운동”이라는 뜻이다. “시간은 시간이 측정하는 운동과 더 이상 관련되지 않으며, 운동

10) 바로 이 *cardo*에서 영어 *cardinal*(추기경, 가장 기본적인)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11) 시간에 대한 규정이 이처럼 주기적 운동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현대 물리학의 시간에 대한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시간의 단위인 초(秒, *second*)는 ‘절대 영도에서 세슘-133 원자의 바닥상태($6S_{1/2}$)에 있는 두 개의 초미세 에너지준위($F=4$, $F=3$)의 주파수 차이를 9,192,631,770Hz로 정의하고’ 그 역수에 의해 정의된다. 관련 이슈에 관해서는 이호성, 「시간의 단위 “초”의 새로운 표현」,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4년 6월, 제13권 6호, 한국물리학회, p. 39 참조.
 12) 시간에 대한 과학과 철학의 접근에 대해서는 Bernard Piettre, *Philosophie et Science du Temps*, Paris: PUF, 1996을 참고하면 좋다.

이 운동을 조건 짓는 시간과 관련된다.” 따라서 “{시간은 모든 가능한 운동에 자신의 규정들의 순차성(順次性, succession)을 부여하는 한에서, 그 자체로(en lui-même), 또 그 자체를 통해(par lui-même) [...] 단선적 직선적이 된다(devient unilinéaire et rectiligne). 이는 시간의 직선화(rectification, 訂正)이다. [...] 시간은 기수(基數)적이기를 그치고, 서수적(序數的, ordinal)이 되며, 텅 빈 시간의 순서(ordre du temps vide)가 된다.}” 시간이 운동에서 해방된 것이다. 회전문의 축과도 같은 경첩에서 빠져 나온 시간은 제멋대로 질주하고 펼쳐진다. 들뢰즈가 “순차성”과 “순서” 또는 “서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cardo*와는 달리 라틴어 *ordo*는 ‘베틀에 늘어서 있는 실들’을 뜻하며, ‘실로 (천을) 짜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ordo*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적) 질서보다 (시간적) 순서이다. 서수는 수를 세되,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센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이 흐르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기수가 반복된다면, 서수는 진행된다. 서수의 이런 특성이 시간의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이다. 들뢰즈는 이를 시간의 “직선화” 또는 “정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예전의 시간 이해가 시간을 “주기성” 또는 “원운동”을 통해 파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여기서는 시간의 “미로(迷路)”도 더 이상 “원”도 “나선”도 아니며, “단순하고 가혹하고 {끔찍한} 그만큼 신비스런 하나의 실, 하나의 {순수한} 직선(une {pure} ligne droite)”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보르헤스가 말하는 “단 하나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나눌 수 없으며 끊임없는 미로”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순수한 단 하나의 직선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인가? 그것은 시간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뻗어가기 때문이다. 도달하기 전에 먼저 도망가 버리는 시간. 새로움의 끊임없는 생성에서 우리는 원리상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이 ‘시간의 해방’이란 말의 참된 의미이며, ‘행동하기 위해 시간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햄릿의 성취이다. 시간의 해방은 시간의 참된 미로를 만드는 데로 귀결된 것이다. “시간은 경첩에서 빠져 나왔다.”

이제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청된다. 우선, 시간은 “순차성”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 안에서 규정되는 그러한 운동의 부분들을 순차적이라고 정의해주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시간 자체가 순차성

이라면, 시간은 [그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시간 안에서 순차적이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가게 되리라.” 따라서 시간 자체는 순차성에 의해 정의될 수 없으며, 오직 시간 안에 있는 사물들만이 순차적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간 안에서 순차적인 이 사물들은 “같은 시간 안에서는 동시적(simultanées en même temps)”이며, “임의의 어떤 시간 안에서는 머물러 있다(demeurent dans un temps quelconque).” 이 말을 풀어 보면, 시간의 순차성을 한순간 멈추면, 따라서 ‘같은 시간’이라는 단면으로 자르면, 즉 관념적으로 시간을 정지시켜 보면, 사물들은 그 속에서 ‘동시적’이며, 또한 어떤 사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다면, 그 사물들은 그 시간 동안 ‘머물러 있고 지속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들뢰즈는 말한다. “시간을 순차성에 의해 정의하고 공간을 동시성에 의해 정의하고 영속성(permanence)을 영원성(éternité)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영속성, 순차성, 동시성은 시간의 양태들 또는 관계들이다{(지속(durée), 계열(série), 집합(ensemble))}. {이것들은 시간의 분출들(éclats)이다.}” 이 발언은 시간과 관련된 기존의 주요 착상들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영속성은 지속이요, 순차성은 계열¹³⁾이요, 동시성은 집합¹⁴⁾이다. 그리고 이 셋은 모두 시간의 양태들 또는 관계들, 또는 시간의 표출들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영원성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순차성”에 의해 정의하고 공간을 “공존{또는 동시성}”에 의해 정의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찾아야 한다. “운동하고 변하는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다. 하지만 시간 자체는 영원하지 않을뿐더러 변하지도 않고 운동하지도 않는다. 시간은 변하고 운동하는 모든 것의 형식이다. 하지만 시간은 부동의 불변의 형식이다. 시간은 영원한 형식이 아니며, 단지 영원하지 않은 것의 형식, 변화와 운동의 부동의 형식이다. 이런 자율적 형식은 깊은 신비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청한다.” 그리고 2판에서는 삭제했지만, 1판에서는 이 문장 뒤

13) 들뢰즈에서 ‘계열’은 시간적 순차성과 관련된 뜻을 갖는다. ‘계열’은, 일차적으로는, 공간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없는 개념이다.

14) 어떤 집합이 성립하려면 그 집합의 원소들이 동일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집합은 동시성 아래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에 “이는 칸트가 발견하거나 창조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들뢰즈는 덧붙이고 있다. 아마도 기존 시간관의 해체 및 재정의의 요청한 것이 칸트보다는 들뢰즈 자신이기에 삭제한 것이리라.

Ⅲ. 나라는 것은 타자이다(JE est un autre)

들뢰즈는 “나는 타자이다(Je est un autre)”라는 랭보의 1871년 5월의 편지의 구절로 II절을 시작한다. 이 경구는 『순수이성비판』의 혁명의 또 다른 양상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가장 난해한 양상(l’aspect le plus difficile)”(1판)이다. 1판의 이 두 문장 대신, 들뢰즈는 2판에서 한 문단 정도를 앞에 첨가하면서 II절을 시작한다. 좀처럼 “난해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들뢰즈로서는 이 난해함을 얼마간 완화해야 했던 것 같다. 첨가된 대목은 칸트의 문제가 여전히 시간과 관련됨을 밝히는 데 할애된다. 사실 1판만 보면, II절은 “나라는 것(le Je)”과 “자아라는 것(le Moi)”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것 같다.¹⁵⁾ 하지만 2판에서 II절의 핵심 문제도 결국 시간임이 드러난다.

칸트의 문제의 등장 배경은 첫 문장부터 언급된다. “{시간에 대한 또 다른 고대적 착상이 있었다. 그것은 사고 양태 또는 영혼의 내공(內鞏) 운동(mode de la pensée ou mouvement intensif de l’âme)으로, 일종의 정신적 수도사적 시간이다.}”¹⁶⁾ 들뢰즈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15) 우리는 le Je와 le Moi를 각각 ‘나’ 및 ‘자아’로 옮기지 않고 ‘나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으로 옮긴다. 이를 통해 정관사 없이 쓰인 Je와의 번역 상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랭보의 편지 구절은 정관사 없이 Je라고만 썼는데, 동사를 3인칭 현재 단수형인 est로 썼기 때문에, 사실상 le Je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le Je는 칸트의 das transzendente Ich를, le moi는 das empirische Ich를 가리킨다.

16) 들뢰즈는 intensif이라는 용어를 칸트에서 빌려 온다. 『순수이성비판』에서 intensif 및 그와 쌍을 이루는 extensif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갖는다. “밀도적 크기(intensive Größe): - 도[度]로서의 밀도적 크기 B207 211 / - 감각에 미치는 영향의 도로서 밀도적 크기 B208 / - 오직 ‘하나’[단위]로서만 포착되고, 부정성=0으로 접근함으로써만 다수성이 표상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로서 밀도적 크기 B210 / - 연장적 크기와 밀도적 크기의 비교 B208이하 212 214 / - 밀도적 크기의 원칙 B207-218(참조

시간관은 플로티노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관을 비판하면서 도입되었다. 시간은 ‘세어진 수’가 아니라 ‘세는 영혼’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II절의 문제가 I절의 문제에 이어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착상을 검토하는 데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시간 문제는 I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2판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I절에서는 ‘연장적 운동’이 비판되었다면, 여기서는 ‘내공적 운동’이 비판될 것이다. 그런데 들뢰즈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이 착상의 세속화이다.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le je pense)은 순간적인 규정 행위인데, 이는 규정되지 않은 실존(‘나는 있다’(je suis))을 내포하며, 이 [규정되지 않은] 실존을 생각하는 실체의 실존이라고 규정한다(나는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je suis une chose qui pense).)}” 이런 착상에 칸트는 물음을 던진다. “{하지만 만 미규정(l’indéterminé)[“이 규정되지 않은 실존”[‘나는 있다’](1판)]이 어떤 식으로 [“나는 생각한다’에 의해”(1판)] “규정 가능한지(déterminable)” 말할 수 없다면, 규정(détermination)은 어떻게 규정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은 답을 가져올 뿐이다. “{미규정된 실존이 규정 가능성을 찾는 것은} 오직 시간 안에서, 시간의 형식 아래에서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는 시간을 변용시킨다(affecte).¹⁷⁾ “나는 생각한다”는, 시간 속에서 변하며 매순간 의식의 등급(degré)을 제시하는 자아(un moi)의 실존을 규정할 뿐이다. 따라서 규정 가능성의 형식으로서의 시간은 영혼의 내공 운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순간에서의 의식

B201주 414 415주) // 연장적 크기(extensive Größe): - 연장적 크기[=부분들의 표상이 전체 표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크기] B203 // 모든 직관들은 연장적 크기들이다 B202-207(참조 B201주 208이하 212 214 217 414) // 부피 또는 분량으로서 연장적 크기 B215이하(칸트,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2』 pp. 984ff.의 「개념 찾아보기」에서) 우리는 intessif를 ‘밀도적’이라는 말 대신 ‘내공(內鞏的)’이라고 옮겼다. 이 개념에 대한 칸트의 직접적 설명은 『순수이성비판1』(백종현 옮김)의 pp. 401ff.에 나온다.

17) 여기서 우리는 affecter라는 말을 통상적인 칸트 번역의 “촉발하다”라고 옮기지 않고 들뢰즈의 어법을 따라 “변용시키다”라고 옮겼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칸트 자신이 『순수이성비판』에서 명사로서 사용하지 않은 Affect(변용태/정감)라는 개념을 들뢰즈가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깊게 보자면, 들뢰즈는 스피노자적인 의미의 affecter(변용시키다) 및 affect(변용태/정감)를 더 발전시켜 인식론적 맥락을 넘어 존재론적 맥락에서 재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의 등급의 내공적 생산이 시간에 의존한다.}” 이것이 칸트가 세속적 형태로 이루어 낸 “{시간의 두 번째 해방}”이다. 첫째 해방을 사물의 연장적 운동에서의 해방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 해방은 영혼의 내공적 운동에서의 해방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 오직 시간만이 규정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정한다. 말하자면, 플로티노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는 영혼에 주목했는데, 사실은 영혼의 실존 자신이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자아라는 것(*le Moi*)은 시간 안에 있으며, 따라서 끊임없이 변한다. “그것[*le Moi*]은 시간 속에서 변화들을 체험하는 수동적인(*passif*), 아니 차라리 수용적인(*réceptif*) 하나의 자아이다.” 반면 “나라는 것(*le Je*)은 매순간 현재, 과거, 장래를 분배하면서, 시간의 종합 및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것의 종합을 끊임없이 행한다.”(1판) 여기서 나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의 차이가 드러난다. 나라는 것은 능동에 위치하는 반면 자아라는 것은 수동적이다. “{나라는 것(*le Je*)은 나의 실존(나는 있다)을 능동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행위(*un acte*)(나는 생각한다)이다. 하지만 나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만 나의 실존을,} 자기 고유의 사고의 활동성(*une activité de sa propre pensée*)만을 자신에게 재현하는 {수동적이고} [“현상적이고”(1판)] 수용적이고 변하는 하나의 자아(*un moi*)의 실존으로 {규정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나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은 근본적 차이(*une différence fondamentale*)라는 조건에서만 서로 관련을 맺는 시간의 선(*la ligne du temps*)에 의해 격리되어 (*séparés*) 있다. [“그래서”(1판)] 나의 실존(*mon existence*)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존재(*un être actif et spontané*)의 실존으로 결코 규정될 수 없고, {나라는 것을, 말하자면 규정의 자발성을, 자아를 변용시키는 하나의 타자 (*un Autre*)로 자신에게 재현하는 수동적 자아의 실존으로 규정될 수 있다 (“내감의 역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한다. 우선 나

18) 1판에는 대략 이 문장의 앞부분 정도에 다음 문장이 있다. “나(*Je*)는 자아(*moi*)를 유일하고 능동적인 하나의 주체(*un sujet unique et actif*)로 구성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나’와 ‘자아’라는 표현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2판에서 들뢰즈는 ‘나라는 것’(*le Je*)과 ‘자아라는 것’(*le Moi*)이라는 표현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며, 유일하게 이 양자의 통일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나’(*Je*)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은 시간의 선에 의해 근본적 차이를 빚어내며 격리되어 있다. 여기서 시간은 차이와 동의어이다. 나의 실존은 나라는 것의 규정 행위에 의해 시간 안에서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변하는 자아의 실존으로 정립되며, 자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의 고유한 사고의 활동성(나는 생각한다)을 사후에 자신에게 재현할 뿐이다. 그런데 나라는 것은 시간의 종합을 행하는 주체인데, 이 주체는 하나의 타자로서만 재현된다. 이제 랭보의 경구는 조금 수정되어야 한다. ‘나라는 것은 타자이다(Le Je est un autre).’ 자아의 의식에 즉각 현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타자는 무의식적 주체이기도 하다. 자아의 ‘의식의 등급’은 나라는 것, 즉 무의식적 주체에 의해 정립된다.

이제 나라는 것(le Je)과 자아라는 것(le Moi)은 하나인 나(Je) 안에서 통일된다. 하지만 이 나는 분열된 나이며, 시간의 실이 이 분열을 낳고 또 껴맨다. “나(Je)는 시간의 형식에 의해 자아-자신(moi-même)과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부분들끼리 순차적으로뿐 아니라 매순간마다} 자신의 종합을 행하면서 이 형식을 필연적으로 변용시키며, 자아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 이 형식의 내용으로서 필연적으로 변용하기 때문이다. 규정 가능한 것의 형식은, 규정된 자아라는 것이 규정을 하나의 타자로서 자신에게 재현하게 만든다. {요컨대, 주체의 광기가 경첩에서 빠져버린 시간에 대응한다.} 이는 나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이 시간 안에서 이중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과도 같은데, 이 전환은 나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을 서로 관련시키고 서로 껴맨다. 이것이 시간의 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들뢰즈가 제시하는 독특한 해석 가능성을 만나게 된다. 주체의 광기, 또는 분열된 나, 분열자(schizo). 사실상 나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은 꼭 인간의 그것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 자연(Natura)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것이라는 자연[Natura naturans] 및 자아라는 것이라는 자연[Natura naturata]의 분열과 종합의 운동으로서 존재한다. ‘생산하기와 생산물의 동일성으로서의 생산의 경과’는 과타리(Félix Guattari)와의 공저 『안티 오이디푸스』(1972)의 핵심 논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들뢰즈가 칸트의 시간론을 통해 정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론이기도 한 것이다.

들뢰즈는 여기서 다시금 햄릿에 주목한다. 이는 주제 면에서 I절과의 연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II절에 첨가된 대목이기도 하다. “{햄릿이 배우나 꿈꾸는 자와도 같이(*tel l’acteur ou le dormeur*) 순수 이성에도 도전하는 위험한 힘을 그에게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타자로서 자신의 사고 활동을 수용하는 수동적 실존으로 나타나는 매순간, 햄릿은 자신의 탁월하게 칸트적인 성격을 공표하고 있다. [...] 햄릿은 회의주의의 인간 또는 의심의 인간이 아니라, 비판의 인간이다.}” I절에서 우리는 햄릿이 행동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자임을 보았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의심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판의 시간이요, 비판적 시간이다. 햄릿의 성취는 타자를 수용하는 수동적 실존을 긍정한다는 데 있다. 이는 마치 배우의 일과도 같다. 배우는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성취한다.¹⁹⁾ 그것은 우주의 수동적 종합에 참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시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까지 갈 때에만 비판은 완성된다.

그런데 들뢰즈가 보기에 칸트는 랭보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랭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형상-질료설을 넘어서지 못한다. 랭보는 대상을 질료와, 개념을 형상과 같다고 본 것이다. 랭보는 “주형(*moule*)” 및 “주조(*moulage*)”를 모델로 삼고 있다. 반면 칸트에게 “{나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모든 개념에 동반하는 재현}”이며, “{자아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모든 대상들이 자기 고유의 순차적 상태들의 연속적 변주(*variation continue*)에 대해, 또 순간에서의 자신의 정도들의 무한한 변조(*modulation*)에 대해, 관련을 맺듯 관련을 맺고 있는 그것}”이다. 칸트에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개념’과 ‘대상’의 관계는 “{주조가 아니라 변조를 구성하는 나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의 관계}”에 의해 이중화된다. 그래서 ‘형상’과 ‘질료’의 구별은 “{새로운 형식적 관계들의 설립(시간)과 새로운 질료의 배치(현상)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회귀 없는 선형(線形) 전개(연속)의 연속(*la continuité d’un développement linéaire sans retour*)}”으로 대체된다. 칸트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의 행위(*acte*)와 이 행위가 귀속되는 자아라는 것을 구별해 주는 시간 일반의 형식”(1판)이었던 것이다. 시간의 화살은 돌이킬 수 없으며, 이 돌이킬 수

19) 배우와 관련된 이런 논의는 들뢰즈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김재인(2013), 「지적의 들뢰즈 읽기에 나타난 인간주의적-관념론적 오독」, 『진보평론』 제56호 2013년 여름호, pp. 208-12 및 김재인(2014), 「들뢰즈의 예술론을 통해 본 예술가적 배움. 초기 프루스트론을 중심으로」, 『미술과교육』 15권 1호, 2014, pp. 10-11 참조.

없음 속에서 시간은 전개된다. 중요한 것은 이 연속적 전개가 “변주” 또는 “변조”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체(개념, 형상)와 대상(질료)은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야기될 대목이다. 시간과 공간은 지금까지 그것이 지녔던 정의를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 안에서 자아라는 것과 나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주체의 내부를 지나간다. 시간은 나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을 변용시키는 형식이다.”(1판) “{나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을 시간 안에서 수동적이고 변하는 자아의 실존으로 규정한다면,} 시간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변용시키는 이 형식적 관계이며,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 내부적으로 변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간은 자신에 의한 자신의 변용태(1’Affect, 情感)라고, 또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 의해 변용할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나라는 것’이 주체의 기능임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을 변용시키는 형식이 바로 시간이다. 다시 말해, 자기 변용(auto-affection)의 형식적 가능성이 곧 시간이다. 변용태(Affect, 情感)가 바로 시간이다. 들뢰즈는 칸트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변용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변용태는 최소한의 시간 폭을 갖는데, 이 폭은 변용시키는 주체와 변용한 대상 사이의 간격이며, 이 양자의 통일이 하나의 변용태를 이룬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순차성에 의해 정의될 수 없는 불변의 형식으로서의 시간은 내부성의 형식(*la forme d’intériorité*)(내감)으로서 나타나며, 반면 더 이상 공존{또는 동시성}에 의해 정의될 수 없는 공간은 그 자신의 측면에서 보자면 외부성(*extériorité*)의 형식으로, 외부 대상으로서의 다른 사물에 의해 변용할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내부성의 형식”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시간이 마음의 내부에 있다”는 것만 가리키지는 않는데, 공간 또한 시간 못지않게 마음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성의 형식”이라는 말도 공간이 마음과는 “다른 사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대상들 또는 외부 대상들 같은 대상들의 모든 재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외부성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공간은 내 마음의 내부에 머물러 있으므로 외부성은 내재성을 포함하며, 내 마음은 시간

과 관련해서 자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재현되기에 내부성은 초월성을 포함한다. “{시간은 우리의 내부에 있지 않다. 또는 적어도 시간은 특유하게 우리의 내부에 있지 않다. 시간의 내부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이며, 그렇기에 시간에 의해 우리는 변용 과정을 통해 우리를 규정하는 것과 항상 분리되어 있다. 우리의 통일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부성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파내고,} 우리 자신을 분할하고, 우리를 이중화한다. 이 이중화는 끝(bout)까지 가지 않는다. 시간은 종결(fin)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현기증, 하나의 진동(un vertige, une oscillation qui constitue le temps), {이는 마치 무한정한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미끄러짐(un glissement), 하나의 동요(un flottement)와도 같다.}” 이렇게 해서 시간은 ‘내부성의 형식’으로 공간은 ‘외부성의 형식’으로 각각 재정의된다. 그러나 여기서 내부와 외부의 마음의 내부와 외부의 가리키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표현은 인식론의 맥락에서만 유효하다. 내부성의 형식인 시간은,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끊임없는 내적 분열의 형식’이다. 시간은 ‘텅 비어 있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내부성의 형식’이다. 시간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내적 분열을 겪는 모든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말하자면, 우주 전체와 관련될 수 있다. 이로써 시간은 존재론화된다. 한편 외부성의 형식은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와 관련을 맺는 형식이다. 이처럼, 들뢰즈에 따르면, 내부성의 형식이건 외부성의 형식이건 그것은 마음에만 한정되지 않고 존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IV. 선(善), 그것은 법(法)이 말하는 그것이다 (Le Bien, c'est ce que dit la Loi)

『실천이성비판』의 “전복”으로는 카프카의 단편 「만리장성」에 나오는 경구가 제시된다. 들뢰즈는 2판에서 1판과는 다른 구절을 인용한다. 이제 관건은 얇이 아니라 실천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들에 의해 통치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 왜냐하면 법들의 성격은 이처럼 그 내용에

비밀을 필연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인용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는 법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알지 못하는 법을 따라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난다. 여기서 관건은 “선(le Bien)”과 “법(la loi)”의 관계이다. 고대 철학, 특히 플라톤의 『정치가』는 특정 조건에서 법들이 우리에게 “선 또는 최선”을 알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법들은 “신들이 저버린 세계에서 “이차적 방편”이요 선의 대리물”이라는 것이다. 법들은 “삶의 관점에서” 선의 모방과도 같다. 인간은 선을 알 수 없기에 법을 일반적 지침으로 삼는다. 만일 선을 안다면 굳이 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법을 “최고 원리”(1판) 및 “최고 심급(審級)(la plus haute instance)”(1판)으로 취급한다. 여기서 고전적 관점의 전복이 일어난다. 칸트에게 법과 그 내용인 선은 삶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대상은 현상에 국한된다. 그래서 칸트는 “법과 선의 관계의 전복을 행하고”, “{법을 순수하고 텅 빈 유일성(unicité)으로 격상시키는데}”, 이는 “운동과 시간의 관계의 전복만큼이나 중요한”(1판) 작업이었다. “{법이 말하는 것이 선이요,} 선은 법에 의존하며, 그 반대가 아니다.” 『순수이성비판』의 전복과 비교하자면, “삶의 대상들이 주체(나)의 둘레를 돌듯이, 선은 주체적 법(la loi subjective)의 둘레를 돈다.”(1판) 나아가 “{제1원리로서의 법은 내부성도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은 법을 선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은 순수한 형식이며, 감각적이건 지성적이건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 법은 해야만 하는 것(내용, 선)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이건 간에, 복종해야 할[“우리가 부합해야 할”(1판)] 주체적 규칙을 말한다. 그 행위의 준칙이 모순 없이 보편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그 행위의 동기가 이 준칙만을 대상으로 갖는다면, 그런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리라.” 예컨대 거짓말은 보편적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거짓말은 거짓말을 믿는 사람을 내포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은 새롭게 정의된다. “법은 보편성의 순수한 형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법은 착해지기 위해서 의지가 추구해야만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대신 도덕적이기 위해서 의지가 취해야 하는 형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

한다.” 그래서 “『실천이성비판』의 텅 빈 형식으로서의 법은 『순수이성비판』의 텅 빈 형식으로서의 시간에 대응한다.”(1판) 시간과 법이 텅 빈 형식인 까닭은 그것이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우리에게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대신 우리에게 ‘해라(II faut)!’라고만 말하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선을, 말하자면 이 순수한 명령(*impératif*)의 대상들을 연역해야만 한다.” 또한 “법은 알려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법 안에는 알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은 순수하게 실천적인 규정{의 대상}이지,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칸트가 행한 전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들뢰즈가 칸트를 통해 주장하려는 요점은 무엇인가? 들뢰즈 본인이 던지시 물었던 “여기서 ‘주체적’이란 무슨 뜻인가?”(1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실마리를 잡아 보자. 우리는 법의 내부 또는 내용을 알 수 없다. 법 안에는 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이 ‘최고의 원리’ 또는 ‘최고의 심급’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주체적 규칙 또는 준칙’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순수하고 텅 빈’ ‘보편성의 형식’으로 정의된다. 우리는 법에서 선의 내용을 연역해야만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런 점에서 법은 우리에게 선을 연역하라는 “순수한 명령”을 내리는 주체이다. 여기서 『순수이성비판』의 ‘나라는 것’이 위치한 자리에 법이 오고, ‘자아라는 것’이 위치한 자리에 선이 온다는 점이 파악된다. 하지만 나라라는 것과 자아라는 것의 관계는 ‘앓’의 관계였던 반면, 법과 선의 관계는 이론적이거나 사변적이 아닌 순수한 ‘실천’의 관계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선을 연역하면서도 그것의 내용을 알지는 못하는 채, 법의 명령 또는 ‘주체적 규칙 또는 준칙’에 복종해야만 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해라!”라는 명령의 준엄함이다.

법은 ‘최고의 원리’ 또는 ‘최고의 심급’이면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결론이 나온다. “법은 그것의 선고(*sentence*)와 구별되지 않으며, 선고는 적용(*application*)과, {집행(*exécution*)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우리의 심장과 살에 새겨진 것(*empreinte*)”과 뒤섞이고, 그렇게 새겨진 것을 통해서만 법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법은 “{우리의 잘못에 대

한 궁극적 삶}”을 주지는 못하는데, 법의 바늘이 우리에게 쓰는(écrit) 것은 “{(의무에 부합하게만이 아니라) 의무에 의해 행해진 것들(Agis par devoir)}”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의무란 법이 명령하는 “해라!”이다. “{법은 우리의 덕은 물론 우리의 악이나 잘못에서도 결코 우리를 사면(赦免)하지 않는다(Elle ne nous tient jamais quittes). 또한 매순간 외견상으로만 사면이 있으며, 도덕적 의식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우리의 모든 포기(拋棄)에 의해 강화되고 여전히 더욱 엄혹하게 내려친다. 그것은 햄릿이 아니다. 그것은 브루투스(Brutus)이다.}” 왜 법은 우리를 사면하지 않는가? 사면은 왜 매순간 겉으로만 있는가? 왜 우리가 포기할수록 도덕적 의식은 강화되고 엄해지는가? 왜 브루투스인가? 들뢰즈가 갑자기 브루투스를 언급한 것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극의 맨 마지막에서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외친다. “이 사람은 가장 고귀한 로마인이로다. / 모든 음모자들은, 이 사람만 빼고는, / 위대한 카이사르를 시기하여 그 일을 했도다. / 이 사람은, 오직 전적으로 정직한 생각으로, / 또한 모두의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그 일 하나를 했노라. / 이 사람의 삶은 고결하며, 여러 원소(元素)가 / 그의 안에 섞여 있어, 그의 본성을 이루었으며, / 온 세상에 말하고 있노라. 여기 사람이 있었다.”²⁰⁾ 브루투스는 비록 시저의 암살이라는 내용의 선을 연역해 내기는 했지만, 그 행위 역시도 선을 위해 행동이다. 그것은 의무에 의해 행해진 실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햄릿은 행동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자이다. 반면 브루투스는 행동이 우선하는 자이다. 일단 선을 연역한 후 행동하지만, 선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선에 대한 삶은 필연적으로 지연된다. 왜냐하면 삶이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다른 실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유죄이다(culpables), 필연적으로 유죄이다. 유죄성은 시간의 실을 중복하는 도덕적 실과도 같다.”(1판) 그러나 여기서 유죄라

20) “This was the Noblest Roman of them all: / All the Conspirators saue onely hee, / Did that they did, in enuy of great Cæsar: / He, onely in a generall honest thought, / And common good to all, made one of them. / His life was gentle, and the Elements / So mixt in him, that Nature might stand vp, / And say to all the world; This was a man.” (W. Shakespeare, *Julius Caesar* (1599), 5막 5장, 2717-24행.)

는 것은 무죄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순간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는 유죄이지만, 판결의 순간에 우리는 시간이 흘러 이미 다른 자리에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영원히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 과정은 무한히 되풀이된다. 바로 시간의 흐름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이 길, 영혼의 불멸성을 요구하는 이 길은, 우리가 법과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가혹하고 끊임없는 시간의 직선을 따라간다. [...] 이러한 연장 (prolongation)은 끊임없이 법의 심판을 지연한다(différer le jugement de la loi). 시간이 경첩에서 빠져 나올 때, 우리는 느린 죽음 또는 지연된 심판 또는 무한한 부채(負債)의 무한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잘못과 속죄라는 고대의 순환을 포기해야만 한다.}” 카프카의 『소송』에서처럼, 시간 때문에 우리는 “{외견상의 사면}” 또는 “{무한정한 연기}”라는 사법적 양자택일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유죄이지만, 또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면된다. 역설적이지만, 법은 우리에게 모든 실천을 허용한다. 끊임없이 저지르는 자는, 시간의 선을 따라 끊임없이 도주하기 때문에, 결코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칸트의 역설은 극에 달한다. 모든 실천이 무죄라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좋은가? 어떤 행동이 의무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은 결코 알 수 없지 않은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오직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으리라. 영원회귀 사상에 따르면,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힘의 끝까지 행해야만, 영원한 반복을 각오하고 행해야만, 삶을 해방할 수 있다. 어떤 실천이 최선이었는지는 오직 나중에서야 알 수 있을/없을 뿐이다. 만약 ‘그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회한으로 인해 삶은 가벼워질 수 없을 것이다.

V. 모든 감각들의 문란함 (Un dérèglement de tous les sens)

II절에서 인용된 랭보의 편지에서 가져온 2판의 다음 구절은 『판단력비판』이 이룬 “전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모든 감각들의 문란함을 통해 미

지(l'inconnu)에 도달하라, ... 모든 감각들의 길고 거대하며 검토된 문란함.}” 사실 IV절의 내용은 1판과 2판에서 거의 같다. 그만큼 처음 썼을 때부터 완결된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1963년에 발표한 「칸트 미학에서 발생의 관념」²¹⁾이라는 논문에서 길게 다룬 내용을 요약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들뢰즈는 “모든 감각들의 문란함”이라는 표현 뒤에 “또는 차라리 모든 능력들의 문란한 실행(un exercice déréglé de toute les facultés)”이라고 첨언하고 있다. 들뢰즈가 사용하는 déréglement, déréglé, réglé 같은 표현은 règle(규칙, 규제)에서 파생된 말로, 칸트에게서 각각 잘 정의된 주체의 인식 능력들(“외감, 내감, 상상력, 지성, 이성”)이 규칙을 잘 따른다는 점을 빗대기 위해 채택된 표현이다. 가령 『순수이성비판』은 지성이, 『실천이성비판』은 이성이, 지배적이고 규정적인 능력으로서 다른 능력들을 규제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들뢰즈는 “위대한 저자들이 자신을 갱신하는 일이 드문 나이에 와서, 칸트는 특별한 기적으로 자신을 이끌고 갈 하나의 문제에 부딪혔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 “만일 이처럼 능력들이 다양하면서도 서로 간에 {교대로} 규제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능력들은 모두 함께 자유롭고 규제 없는 관계들을 능히 감당할 텐데, 이런 관계들에서 능력들은 자신의 끝까지 가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능력들과 모종의(quelconque) 조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노년의 칸트가 부딪친 문제이다.²²⁾

우선 esthétique(감성학, 미학)의 의미가 바뀐다. 『순수이성비판』에서 esthétique은 “감각적인 것(le sensible)”을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대상과 관련될 수 있는 질(質)”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판단력비판』에서 esthétique

21) Gilles Deleuze, “L’idée de genèse dans l’esthétique de Kant”, *Revue d’esthétique*, vol. XVI, no. 2, Paris: PUF, 1963. 이 논문은 사후에 Gilles Deleuze, *L’île Déserte et Autres Textes. textes et entretiens 1953-1974*, édition préparée par David Lapoujad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2002, pp. 79-101에 수록되어 출간된다. 글의 번역은 질 들뢰즈,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서울: 이학사, 2007, pp. 176-217에 수록되어 있다.

22)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로 서동욱,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의 1장,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민음사, 2002의 1장, 그리고 서동욱, 「선형적 종합에서 경험적 종합으로 — 지킬 칸트와 하이데 들뢰즈 씨」, 한국칸트학회 엮음, 『포스트모던 칸트』, 문학과지성사, 2006, pp. 153-99를 참고할 수 있다.

은 “감각적인 것의 논리도 아니고 심지어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로고스도 아니다.” 그것은 “미와 숭고의 미학으로, 거기서 감각적인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모든 논리를 넘어 파토스 안에서 자신을 펼치는데, 그것은 시간을 그 용솨음 속에서, 시간의 실 및 시간의 현기증의 기원에서까지도 파악하리라.” 또한 Affect(변용태, 정감)의 의미도 바뀐다. 『순수이성비판』에서 Affect는 “여전히 시간의 질서에 따라 규제된 관계 속에서 자아라는 것을 나라는 것과 관련시켰다.” 그러나 『판단력비판』에서 Affect는 “시간의 원천들로서의 이상한 조합들, 즉 “가능한 직관들의 자의적 형식들”을 형성하기 위해 자아라는 것과 나라는 것이 자유롭게 진화하도록 허용하는 파토스이다.” 그것은 “{우리를 미지(未知)로 들어가게 하는, 모든 능력들의 규정되지 않은 통일(영혼)}”이다. 들뢰즈가 들고 있는 사례에서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판단력비판』으로 오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시간과의 관계이다. *esthétique*은 ‘시간을 그 용솨음 속에서, 시간의 실 및 시간의 현기증의 기원에서까지도 파악’하게 될 파토스로, Affect는 ‘시간의 원천들’을 형성하고 ‘미지’로 들어가게 하는 파토스로 각각 변모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시간은 아직까지는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판단력비판』의 관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미를 정의하게 될 어떤 현상들이 시간의 내감에 자율적인 보충적 차원을 주고, 상상력에 자유로운 반성 능력(*pouvoir*)을 주며, 지성에 무한한 개념의 권력(*puissance*)을 주는가.” 다양한 능력들이 이룩하는 “조화(*un accord*)”는 “아름다운 대자연(*une Nature belle*)이라는 조건에서 자아라는 것과 나라는 것의 자발적인 조화를 증명”한다. 숭고는 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숭고는 “다양한 능력들이 서로 싸움꾼처럼 맞서는데, 한 쪽은 다른 쪽을 극대치 또는 한계까지 밀고 가고, 다른 쪽은 상대방을 혼자서는 언지 못했을 영감(*inspiration*)으로까지 밀고 가면서 반응하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능력들을 놀이하게 한다.” 각자는 서로 한계까지 밀고 가지만, 각자는 서로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다. “주체 안에 열려 있는 균열(*gouffre*)의 내부에서 이는 폭풍우(*Tempête*)여.” 들뢰즈가 여기서 “폭풍우”라는 말을 대문자로 쓴 것은

셰익스피어가 단독으로 쓴 마지막 작품 『폭풍우』에 대한 암유이다. 우리는 본 논문의 제사(題詞)에 해당 장면을 언급했다. 극의 초반, 난파해 방황하는 페르디난드에게 에이리얼은 속삭인다. 이 장면에서 “바다의 변화(a sea-change)”라는 유명한 표현이 등장한다. 함께 난파당한 페르디난드의 아버지가 이미 “바다의 변화”를 통해 뼈와 눈을 비롯한 사지가 모두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실제로는 거짓인, 정보를 에이리얼은 전하고 있다. 폭풍우 그 자체라는 혼돈과 균열,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계기, 바다의 변화. 들뢰즈는 이 지점에서 시간의 원천, 모든 것을 탄생시키는 저 원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판단력비판』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불협화음의 해방, 불화하는 조화(l'émancipation de la dissonance, l'accord discordant)”이다. “모든 능력들의 문란한 실행, 그것은 미래의 철학이 될 것이다. [...] 불협화음으로서의, 그리고 불화하는 조화로서의, 새로운 음악, 시간의 원천.” 들뢰즈가 『판단력비판』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시간의 원천’으로서의 불협화음, 폭풍우, 곧 분열증(schizophrénie)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모든 힘들이 극한까지 행사되면서 이루어지는 종합을 가리킨다. 아름다운 자연. 들뢰즈는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의 조화를 믿는 낙관론자였던 말인가.

VI. 글을 나가면서

들뢰즈의 글 마지막 문장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헌정으로 끝난다. “{이것은 칸트의 셰익스피어적인 양상으로, 그것은 햄릿으로 시작하고 리어왕에서 끝나는데, 칸트 뒤에 온 철학자들은 리어왕의 딸들이리라.}”(IV절) 더 정확히 말하면, 들뢰즈의 글 전체가 셰익스피어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햄릿’으로 시작해서 ‘브루투스’를 거쳐 ‘폭풍우’를 통과해 ‘리어왕’에서 끝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 번 돌아보자.

『순수이성비판』의 영웅은 햄릿이었다. I절에서 햄릿은 경첩에서 빠져 나온 시간을 말했다. 이로써, 시간은 외연적 운동에 종속되기를 그치고 해방

되어 제멋대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시간은 자율성을 얻게 된 것이다. II절에서 시간은 내공적 운동에서도 해방된다. 여기서는 규정되는 것(자아라는 것)에게 규정하는 것(나라는 것)은 하나의 타자로 재현되며, 양자를 갈라놓으면서 이어주는 것이 시간이다. 안에서 분열되는 이런 시간은 내부성의 형식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햄릿의 비판적 성취는 이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존재에 합일한다는 점에 있다. 나라라는 것은 타자이지만, 나는 그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자아의 실존을 획득한다. 한편 III절에서 언급되듯이, 『실천이성비판』의 대표는 브루투스이다. 브루투스는 법의 순수한 명령인 “해라!”를 그 선을 연역함으로써 최우선으로 실천하지만, 영원히 선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선은 법이 말하는 그것이지만, 심판은 지연되며, 이런 지연은 시간의 단선적 흐름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여기서 유죄는 무죄로 탈바꿈한다. IV절에서는 『판단력비판』을 통해 모든 감각들 또는 능력들이 자유롭게 실행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조화를 강변한다. 이것은 주체 안에 열려 있는 균열에서 이는 폭풍우로 묘사되기도 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펼쳐지는 힘들의 자유로운 실행이라는 폭풍우를 통해 이르게 되는 불협화음이 바로 시간의 원천이다. 여기서 해방된 시간은 그 본모습을 드러낸다.

앞에서 보았듯이,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서들을 자신이 선택한 시적 경구들로 요약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시간론 및 존재론을 구성한다. 칸트가 다양한 인식 능력들에 관해 말한 것은 실제로는 존재 자체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칸트의 인간을 우주 또는 자연으로 번역하는 일은 실은 들뢰즈의 성취가 아닐까.

투 고 일: 2014. 05. 15.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0.

김재인
 한국의국어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1차 문헌

- Deleuze, Gilles, “L’idée de genèse dans l’esthétique de Kant”, *Revue d’esthétique*, vol. XVI, no. 2, Paris: PUF, 1963, pp. 113-136.
 in Deleuze (2002), pp. 79-101.
- _____, *La philosophie critique de Kant*, Paris: PUF, 1963.
- _____, “On four poetic formulas which might summarize the Kantian philosophy” in Deleuze (1984), pp. vii-xiii.
- _____, “Sur quatre formules poétique qui pourraient résumer la philosophie kantienne”, *Philosophie*, no. 9, 1986, pp.29-34. (1판)
- _____, *Kant’s Critical Philosophy*, tr. Hugh Tomlinson & Barbara Habberjam, London: The Athlone Press, 1984.
- _____, *Critique et Clinique*, Paris: Minuit, 1993.
- _____, “Sur quatre formules poétique qui pourraient résumer la philosophie kantienne”, in Deleuze (1993), pp. 40-49. (2판)
- _____, *L’île Déserte et Autres Textes. textes et entretiens 1953-1974*, édition préparée par David Lapoujade,,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2002.
- 들뢰즈, 질, 『칸트의 비판 철학』, 서동욱 옮김, 서울: 민음사, 1995.
- _____,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서울: 이학사, 2007.

2차 문헌

- 김재인, 「지적의 들뢰즈 읽기에 나타난 인간주의적·관념론적 오독」, 『진보평론』 제56호 2013년 여름호, 2013.
- 김재인, 「들뢰즈의 예술론을 통해 본 예술가적 배움. 초기 프루스트론을 중심으로」, 『미술과교육』 15권 1호, 2014.
- 백종현, 「『순수이성비판』 해제」, in 칸트(2006).
- 서동욱,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서동욱, 『들뢰즈의 철학』, 서울: 민음사, 2002.

서동욱, 「선형적 종합에서 경험적 종합으로 — 지킬 칸트와 하이데
들뢰즈 씨」, 한국칸트학회 엮음, 『포스트모던 칸트』, 문학과지
성사, 2006.

이호성, 「시간의 단위 “초”의 새로운 표현」,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4
년 6월, 제13권 6호, 한국물리학회.

칸트, 임마누엘, 『순수이성비판』 1, 2, 백종현 옮김, 서울: 아카넷, 2006.

Piètre, Bernard, *Philosophie et Science du Temps*, Paris: PUF, 1996.

Shakespeare, William, *Julius Caesar* (1599), Brandeis University Library
소장 First Folio (1623). 사본: <http://internetshakespeare.uvic.ca/>

_____, *Hamlet* (1599-1602). Brandeis University Library 소장
First Folio (1623). 사본: <http://internetshakespeare.uvic.ca/>

_____, *The Tempest* (1610-11), 539-47행. Brandeis University Library
소장 First Folio (1623). 사본: <http://internetshakespeare.uvic.ca/>

ABSTRACT

Problem of Time in the Deleuzian
Interpretation of Kant

Kim, Jae-Yin

“On four poetic formulas which might summarize the Kantian philosophy” of G. Deleuze explicitly or implicitly refers Shakespeare. Section I’s hero is Hamlet. Time is out of joint, so it is liberated from extensive movement and becomes autonomous. In Section II, time as a form of interiority is also freed from intensive movement. Time separates and links the determined (the self) and the determination (the I). Hamlet receives this determination. In Section III, Brutus practices the Good inferred from “you should!” which is pure imperative of the Law, but he eternally cannot reach the Good. The Good is what the Law says, but the judgement is deferred because of the linearity of the time. In Section IV, all senses or faculties are freely played, reaching a point of discordant accord. In the midst of *The Tempest*, time is nascent.

Keywords: Deleuze, Kant, Shakespeare, time, Hamlet, Brutus, *Tempest*, King Lear